

윤석열 내일 출마·최재형 오늘 사퇴 야권 대선판 이번 주 '골든위크'

윤, 윤봉길기념관서 출마선언 김동연 전 부총리 행보 변수 홍준표·유승민·안철수도 채비

야권의 대선판이 이번 주 '골든위크'를 맞았다. '장의 거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세하면서 대선 대진표가 윤곽을 잡게 된다. 우선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출마 선언 후에는 공개 행보를 늘려가며 간의 신비주의 행보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접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검증대 위에 올라서는 셈이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28일 사퇴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지는 미지수지만,

사퇴 선언만으로서 사실상 링에 뛰어오르는 셈이다. 윤 전 총장이 'X파일' 등 도덕성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최재형 대안론'이 강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27일 "최 원장이 내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정치적 외풍으로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퇴 사유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 원장 주변에서는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여론이 최 원장을 공격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또 야권에서 최 원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점도 감사원장으로서 중립성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최 원장 주변의 설명이다. 결국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본인이 직을 내려놓는다는 점을 '사퇴의 변'에 답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주자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 밖의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그

중한 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당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했으나, 확답을 주지않은 김 전 부총리는 야권 레이스에 뛰어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지낸 인물들이 야권 대선판으로 속속 모여드는 아이러니한 현국이다. 김종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의 입당을 검토 중이다.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 등 당내 주자들은 이미 경선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4일 복당한 홍준표 의원의 재검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관문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변수다. 합당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당내 경선에 참여하겠지만, 당명 변경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윤, 내달 광주 방문... '5·18 사형수' 김종배 동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뒤인 다음 달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한다. 윤 전 총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형수 출신인 김종배 전 의원에 대해 지난 24일 전화해 "7월 중 광주에 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연락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전 의원이 지난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윤 전 총장 캠프도 "구체적 방문 일정은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김 전 의원의 이번 통화는 김 전 의원의 언론 인터뷰가 계기가 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 전 의원은 전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서울법대 재학 중)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 사형을 구형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너무나 고마웠다"며 "당시에 진

마음의 빛도 있고, 윤 전 총장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전화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김 전 의원이 전했다. 그는 "광주에도 오피니언 리더 그룹 중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꽤 있다"며 "이들을 조직화해서 윤 전 총장이 전국적인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광주에 방문함에 따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어떠한 형태의 독재나 전제, 이에 대해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대권 적합도 "윤석열 32.7% 이재명 25.5%"

범여권 이재명 32.3, 이낙연 14.5, 추미애 9.1, 정세균 6.4%

PNR리서치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상위권 후보군의 순위 변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더300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2.7%로 1위를 유지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은 2주 전 39.1%에 달했다가 지난주 33.9%를 기록한 데 이어 소폭 하락하며 답보 상태를 이어갔다. 부인과 처가 등의 의혹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25.5%로 지난주 조사(27.2%)보다 소폭 하락하며 2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3.0%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6.1%로 지난주(4.3%)보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국민의힘 주자 중 5위 내 에 든 것은 홍

이원이 유일하다. 이어 5위 추미애 전 법무장관(5.5%), 6위 최재형 감사원장(3.7%)을 비롯, 유승민 전 의원(3.1%), 정세균 전 총리(2.6%) 순으로 나타났다. 범여권 후보 중에선 이재명 지사 32.3%, 이낙연 전 대표 14.5%, 추미애 전 장관 9.1%, 정세균 전 총리 6.4%, 박용진 의원 5.4% 순으로 나타났다. 범야권의 경우 윤석열 전 총장 34.3%, 홍준표 의원 14.1%, 유승민 전 의원 8.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5.6%, 최재형 원장 5.5%, 원희룡 제주지사 3.6%, 김동연 전 부총리 2.6%, 하태경 의원 2.4% 순이었다. 가상 양자 대결은 윤 전 총장 50.5%, 이 지사 40.5%로,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커졌다. 지난주 양자 대결 조사에선 윤 전 총장 48.3%, 이 지사 43.1%였다. 윤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양자 대결은 각각 50.8%, 40.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티기 5명' 3주째...송영길 결단 임박

지도부 "턱까지 찼다"...비상 징계도 거론

부동산 의혹으로 자진탈당을 권유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가운데 5명(김수흥·김한정·김희재·오영훈·우상호)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부동산세와 경선일정 논란을 정면 돌파한 송영길 대표로서는 마지막 퍼즐을 받아든 셈이다. 이들 5명은 국민권익위의 부실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뤄진 조치인 만큼 탈당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탈당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당의 조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훈 의원은 27일 "다른 4명과 같이 목소리를 내거나 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지도부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송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제 대선후보 경선 관리에 집중해야 만큼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이 이미 탈당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의원총

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2명(윤미향·양이원영)을 출당 조치한 것도 막판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탈당 권고 이후 3주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결단의 시기가 턱까지 찼다"며 "금주 내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설득작업을 이어가되 여의치 않으면 당·당규에 규정된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강제 탈당시키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기의혹이 경미한 일부 의원에 대해서도 비상징계의 칼날을 들이밀지를 놓고서는 지도부 내 입장차가 있어, 송 대표의 고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소병철의원 발의 여순사건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주철현, 김희재, 서동용,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도부를 압박,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을 이끌어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 매매 (상무지구)

-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
- 월수익 300만, (보 4천) 임대완료
-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가능

(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6M 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8660-9801